

“르브론, ‘진짜’ 득점 타이틀 눈독 들일 것”



▲ 르브론 제임스(왼쪽), 스테픈 커리. 사진=sports.yahoo.com

커리가 르브론을 극찬했다.

16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는 지난 12일 열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26점을 추가한 르브론은 플레이오프와 정규 시즌을 합쳐 이 부문 최다 득점인 총 44,157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은 카림 압둘자바의 44,149점이었다. 그러자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많은 경기를 치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생각하면 황당할 따름이다. 르브론의 지속성은 전설적이다. 그는 많은 경기를 했고 다양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우승을 거뒀다. 이러한 활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라며 르브론을 극찬했다.

르브론은 2003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NBA에 입성했다. 르브론은 매 시즌 평균 33.4분 이상, 45경기 이상을 뛰었다. 올 시즌에도 그는 36.7분을 소화하며 평균 29.0점 7.9리바운드 6.5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커리는 “특별한 업적이다. 르브론은 아마 ‘진짜’ 득점 타이틀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커리가 말한 진짜 득점 타이틀은 정규시즌 득점 기록이다. 르브론은 16일 기준 정규시즌에 36,526점을 올리며 해당 부문 3위를 달리고 있다. 1위와 2위는 압둘자바와 칼 말론으로 각각 38,387점, 36,928점을 기록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기록이다. 그러나 많은 팬은 르브론의 기록 달성을 확신하고 있다.

한국에서 US여자오픈 지역 예선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 동안 중단됐던 US여자오픈 한국 지역 예선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골프협회(USGA)는 전날 US여자오픈 지역 예선 일정을 발표했다.

US여자오픈 지역 예선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모두 26곳에서 열린다. 이중 23곳은 미국 내 골프장이고 이외 한국,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됐다. 미국 밖에서 US여자오픈 지역 예선을 치르는 것은 코로나19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 지역 예선은 오는 4월 22일부터 양일 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드림파크 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지역 예선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열렸다. 2020년과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않았다.

올해 US여자오픈 본선은 6월 2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던 파인스의 파인 니들스 골프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다. US여자오픈은 지난 1월 상금 규모를 여자 골프 단일 대회 사상 최대인 1,000만 달러로 올렸다. 지난해 550만 달러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한편 US여자오픈은 한국인이 총 10차례나 우승했던 대회다.

1998년 박세리를 스타트으로 올려 놓은 대회이고 2005년에는 김주연이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08년엔 박인비가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이어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5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9년 이정은, 2020년 김아람이 우승을 차지했다.

“김하성, 트레이드로 안정적 출전 기회 얻어야”



▲ 김하성. 사진=twitter(Padres)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김하성(27)이 올해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졌다.

16일 ‘OSEN’에 따르면 ‘CBS스포츠’는 전날 올해 가능성이 있는 트레이드건을 살폈다. 모두 10명을 뽑았는데 김하성도 6번째에 언급됐다. 이 매체는 “한국의 스타인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신인 시즌 동안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시즌 비리그 무대에 데뷔한 김하성은 117경기에서 타율 2할2리(267타수 54안타), 8홈런, 34타점, 출루율 .270, 장타율 .352, OPS .622에 그쳤다.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주전 자리를 빼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지명타자로 활용 가능성도 적다.

‘CBS스포츠’는 “김하성은 데뷔 시즌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만들지 못했다.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3루수 매니 마차도, 2루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에 밀렸다. 지명타자를 맡기기에는 그의 수비력이 아깝다.”고 김하성의 위치를 설명했다.

이 매체는 내셔널리그 지명타자 제도 도입이 김하성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을 부정하면서 차라리 다른 팀에서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얻어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봤다. 또 샌디에이고 구단은 남은 3년 계약의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트레이드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김하성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팀으로 LA 에인절스,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레즈를 꼽았다. 모두 상위권에 도전할 만한 선수단을 갖춘 팀이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업소명(한글):

Phone: _____

주소: _____

(영문):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광고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계약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